



2012 히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26일(한국시각) 밤 런던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불꽃이 주변 하늘을 환하게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이로운 영국' 대서사시

개회식 대니 보일 감독 총지휘 ... 3시간 스펙타클 영화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2009년 제81회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대니 보일 감독이 총지휘를 맡은 런던올림픽 개회식은 런던타임 3시간의 스펙타클 영화가 될 전망이다. 철통 보안속에 준비해온 이번 개회식에는 2700만 파운드(약 482억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경이로운 영국(Isles of Wonder)'이라는 주제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영제국의 영광과 부활을 극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개회식은 근대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영국이 목초지였던 런던을 황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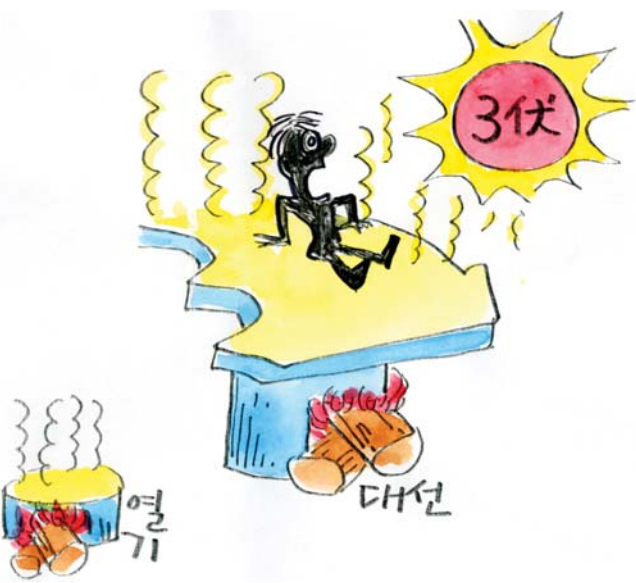
시키고 다시 회생시키는 과정을 한편의 서사시로 이끌어간다. 1막 '푸른 자연과 즐거움(Green and Pleasant)'에서는 푸른 언덕 사이로 개울이 흐르던 과거의 평온한 목초지의 모습을 동물들과 함께 연출한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서 따온 2막 '악마의 맷돌(Dark Satanic Mills)'에서는 광부, 철공노동자 등으로 분한 배우들이 등장해 산업혁명으로 명들어가려는 환경을 보여준다. 3막 '미래를 향해(Toward the Future)'에서는 '빅벤'을 비롯한 런던의 상징물들이 등

장하며 세계대전 이후 변화해가는 영국의 모습을 알린다. 대서사시의 구성단계 동원되는 장비도 스케일이 크다. 2008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체조선수 리 닝이 허공을 달려 성화를 점화했다면 이번 런던에서는 헬리콥터가 등장할 계획이다. '007 제임스 본드'로 유명세를 탄 영국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헬리콥터에서 낙하해 주경기장에 내린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따온 "두려워 말라. 영국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노라"는 문구가 새겨진 27톤의 종이가 울리며 런던올림픽의 막이 올랐음을 전세계에 알린다. 성화봉송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도 주자로 나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26일(현지시각) 런던 중심가에서 펼쳐지는 성화 봉송 이벤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성화 최종주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조정의 레드그레이브와 10종 경기의 데일리 톰슨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우선 꼽히고 있다. 또 이번 개회식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들이 초청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성화를 점화해 전세계를 감동시켰던 미국의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가 참석하고 영국이 낳은 최고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출연한다. 특히 베컴은 행사에 감독 등 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회식에는 모두 1만5000명이 동원됐고, 전세계 약 40억명이 TV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추산된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올해 4伏까지 있다고 봐야 ...

한국 선수단 흥겨운 입춘식

25일 오후 6시(현지시각) 올림픽 선수촌 인터내셔널 존에 한국 선수단의 입장을 알리는 경쾌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영국을 대표하는 록그룹 '퀸(Queen)'의 '바이시클 레이스(Bicycle Race)'를 신나게 편곡한 음악에 맞춰 뮤지컬 공연장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각양각색 옷을 차려입은 배우들의 화려한 율동이 펼쳐지면서 분위기를 돋웠다. 버스에서 내린 한국 선수단은 선수촌과 인터내셔널 존 사이에 설치된 게이트를 통과해 가봉, 아일랜드, 러시아 선수단과 함께 빨간 양탄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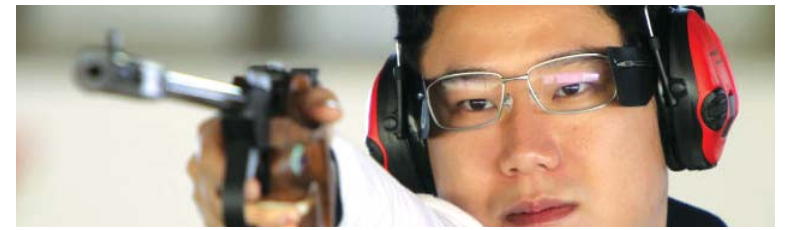
경쾌하게 밟으며 입춘식 장소로 입장했다. 네이비 재킷과 화이트 팬츠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국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 합쳐 50여 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었지만 지구촌 축제 참가에 대해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수들은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로 분주히 공연팀의 몸짓 하나하나를 쫓으며 이색적인 문화 공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선수단은 태극기가 게양될 때는 모두 한쪽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진지하게 응시하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연합뉴스

'골든 데이' 金 쏟아진다



금메달 기대 종목 경기 일정 (한국 시각)

진종오
사격 10m 공기권총
(28일 밤 11시 30분)



최광현
유도 남자 60kg급
(29일 0시 10분)



양궁 단체
남자 결승
(29일 02시 01분)



남현희
펜싱 여자 플뢰레
(29일 03시 40분)



박태환
수영 자유형 400m
(29일 03시 49분)



첫날 금맥 터져야 '10-10' 순조

'첫날 금메달 최대 5개를 따내라!' 27일(이하 현지시각) 막을 올리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내 진입을 목표로 내건 한국 선수단에 대해 첫날인 28일은 '골든 데이'다. 최대 금메달 5개가 첫날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목표로 한 우리 선수단으로서는 첫날 목표의 절반 가까이 달성하면 앞으로 남은 메달 레이스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는 진종오(33·KT)다.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하는 진종오는 이날 오후 3시30분 시작하는 결선

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2008년 베이징 대회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진종오는 올해 시상대 맨 위에 서겠다는 각오다. 양궁 남자 단체전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오후 6시1분에 시작되는 결승에서 한국은 이 부문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최근 다른 나라들의 활 솜씨가 좋아져 한국이 예전처럼 양궁에 걸린 금메달을 독식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첫 금메달을 남자 단체가 따내면 한국의 강세는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은 펜싱 여자 플뢰레의 남현희(31·성남시청)다. 역시 2008년 베이징에서 은메달을 따낸 남현희는 이

번만큼은 '속적' 발렌티나 베잘리(이탈리아)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따낼 각오다. 남현희와 거의 같은 시간에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3·SK텔레콤)이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 나선다.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낼 경우 200m와 1500m 등 다른 종목의 메달 색깔도 금빛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태환이 같은 세 종목에 함께 출전하는 쑨양(중국)과의 맞대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 다른 두 종목에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조심스레 메달을 바라보는 유도 남자 60kg급 최광현(26·상무)까지 '금빛 메치기'에 성공한다면 한국 선수단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첫날 금맥 캐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진청자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2,000여개의 축제 중 2개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40회 강진청자축제

The 40th Gangjin Celadon Festival

2012. 7.28(토) - 8.5(일)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보해양조주식회사 김일화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남진 물축제' (2012.7.27~8.2)와 연계 개최됩니다. 두축제장 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제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청자 소성온도 1300℃를 상정하는 강진군 브랜드

http://gangjinfes.or.kr
1688-1305